

景山 胡文赫 教授 年譜 · 論著 目錄

I. 年 譜

[출생 및 학력]

1948. 7. 서울 출생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76.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
1985. 12. 독일 Albert 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법학과 졸업(Dr. jur.)
‘Zum Anspruchs 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1987.

[수상 · 서훈]

2006. 10. 15 서울대학교 총장 표창
2006. 10. 15 서울대학교 20년 근속공로표창
2013. 8. 31 녹조근정훈장

[경력]

1978. 9~1980. 9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1980. 9~1986. 2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86. 6~1988. 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1988. 10~1992. 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2. 10~1998. 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998. 10~2013.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2013. 9. 1~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교내 보직]

1989. 6~199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 학장보
1996. 6~1998.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담당 부학장
1999. 4~2001. 4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간
2005. 11~2006. 5	서울대학교 평의회 부의장
2006. 2~2006. 5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2006. 6~2008.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9. 6~2013. 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학외경력]

1. 주요 국내활동

2008. 2~2008.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준비위원장 및 초대 이사장
2009. 4~2010. 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환교수
2012. 4~2012. 5	강원대학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위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 주요 학술활동

1980. 3~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1992. 3~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창립회원)
2006. 3~2008. 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2007. 9~현재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Council Member

3. 장기 해외연구

1981. 2~1983. 5	Albert Ludwigs-Universität Freiburg (Stipendiat der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1994. 3~1995. 2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 M.
2001. 5~2002. 2	Harvard Law School

4. 국제학술회의발표 및 초청강연(발표논문이 출간된 것을 제외)
2002. 2. 22. “What is the proper way to settle down legal disputes in East Asia?”, Harvard Law School East Asian Legal Studies Program, Visiting Scholar’s Round Table
2003. 3. 22.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고찰”, 민사소송법 한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2002年改正民事訴訟法の主要内容に関する考察”, Jurist 2003. 9. 요약 수록
2011. 9. 11. “Wege zur Belastungserleichterung des Revisionsgerichts”, Deutsch-japan.-korean. Tagung zum Thema “Aktuelle Fragestellung des Delikts- und Verfahrensrechts” in München
2012. 11. 17. “한국법상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제도”, 민사소송법국제학술연구회, 중국 서북정법대학
2012. 11. 29. “민사소송법의 계수와 번역 - 한국의 경험과 염두에 두어야 할 점 -”, 화동정법대학 건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II. 論著 目錄

1. 단행본

- 『민법주해』 [VI] - 유치권, 박영사, 1992.
- 『민법주해』 [VIII] -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 박영사, 1995.
- 『민법주해』 [IX] - 제389조(강제이행), 박영사, 1995.
- 『민법주해』 [XVI] - 제731조, 제732조, 박영사, 1997.
- 『法學의 理解』, 길안사, 1998(공저).
- 『民事訴訟法研究(I)』, 법문사, 1998.
-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공저).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0(공저).
-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2.
-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3.
-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3.

- 『법률부조에 관한 연구』, 관악사, 2004.
- 『민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5.
-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06.
- 『민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08.
-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 『민사소송법』, 제8판, 법문사, 2010.
-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 『민사소송법원론』, 법문사, 2012.
- 『민사소송법』, 제10판, 법문사, 2012.
- 『민사소송법』, 제11판, 법문사, 2013.

2. 논문

- “청구의 변경(1)”, 사법행정(1978. 3).
- “청구의 변경(2)”, 사법행정(1978. 4)
-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사회과학, 제10권, 1979.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영남대학교 사회과학, 제11권, 1980.
- “소송물이론에 관한 독일 판례 소고”, 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1.
- “사법서사제도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제3·4호(1987).
-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X](1988).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제3·4호(1989).
- “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민사판례연구[XI](1989).
- “Feststellungsinteresse und materiellrechtlicher Feststellungsanspruch”,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7 (1989).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인권과 정의, 제166호(1990. 6).
- “19세기 독일에 있어서의 청구권개념의 생성과 변천”, 손해배상법의 제문제[성현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0).
- “Korea und das deutsche Zivilprozeßrecht”, in: Habscheid (Hrsg.), Das deutsche Zivilprozeßrecht und seine Ausstrahlung auf andere Rechtsordnung (1990).
-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과 당사자적격”, 민사판례연구[XII] (1990).

- “선결적 법률문제와 재소금지”, 민사판례연구[XIII](1991).
- “Der richterliche Aktivismus in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2호(1992).
- “일부청구와 기판력”, 사법행정, 제33권 제3호(1992).
- “법원으로서의 접근을 쉽게 하는 제도의 검토 - 특히 비용부담의 경감에 관하여”,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금량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3).
- “19세기 독일에 있어서의 확인소송의 생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1993).
- “확인소송의 소송물과 재소 여부”, 민사판례연구[XV](1993).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1호(1994).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판례평석)”, 민사판례연구[XVI](1994).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적 사항에 관한 법관의 시사의무”, 민법학논총 제2 [후암곽윤직선생고회기념](1995).
- “Zur neueren Reform des Zivilverfahrensrechts in Korea”, ZZPInt Bd. 1 (1996).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절차의 문제점”, 공정거래법강의(1996).
-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김기섭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 (1996).
- “기관력에 저촉되는 제소에 대한 재판과 불이익변경 금지”, 민사판례연구[XIX] (1997).
- “90년대 민사소송법 판례 회고”, 민사판례연구[XXII](2000).
- “과기환송판결의 기속력”, 판례실무연구(2000).
-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2001).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사망으로 인한 당사자변경에 관한 연구”,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2002).
- “2002년 改正 民事訴訟法の 主要 内容에 관한 考察”, 민사소송, 제7권 제2호 (2003).
- “예비적청구에 대한 재판누락과 권리보호요건”, 민사판례연구[XXVI](2004).
-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 120년의 사적 고찰”, 한독법학(2004).
-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prozessrechts im Jahr 2002”, ZZPInt Bd. 9 (2004).
- “上告制度의 目的과 上告審 負擔 輕減 制度”, 민사소송, 제9권 제2호(2005).
- “韓國におけるドイツ民事訴訟繼受120年の史的考察”, 比較法學(2007. 1).
- “The Reception and Transmission of Civil Procedural Law – Experience in

Korea and Important Point to be Considered”, THE RECEPTION AND TRANSMISSION OF CIVIL PROCEDURAL LAW (2008. 1).

- “Zur “action oblique” im koreanischen Zivilprozess”, Festschrift für Dieter Leipold zum 70. Geburtstag.
-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판례연구[XXXIII](2011).
-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 “民事訴訟法上 訴訟法律關係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3. 번역

- “Peter Gilles, 자신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법관 - 법정모욕”,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제2호(1987).
- “Walther J. Habscheid,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이론의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제1·2호(1990).
- “Peter Arens,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제3·4호(1990).
- “Walther J. Habscheid,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제1·2호(1991).
- “Peter Arens,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정한 절차를 요구할 권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제2호(1993).
- “Dieter Leipold,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와 법관의 책임”(호문혁·오정후 공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3·4호(1995).
- “Dieter Leipold, 유럽민사소송을 향한 길?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3·4호(1997).
- “Dieter Leipold, 現代民事訴訟에서의 口述主義와 書面主義”, 法曹(1998. 3).

<대담>

경산 호문혁 교수 정년기념 대담

일 시 : 2013. 8. 31. (토) 21:30~24:30

장 소 : 용평리조트 베르데빌 A동 701호

대담자 : 김상일(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

오정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완근(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임상혁(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녹취·정리 :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정년소감 및 서울로 오시게 된 계기〉

김상일 : 교수님, 오늘로써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정년을 맞으신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호문혁 : 글썄요, 질문이 너무 막연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웃음) 그런 질문을 자주 받다 보니까 제가 드디어 결론을 냈어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좀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 모이는 내가 찾아 먹어야겠구나’라는 느낌. (일동 웃음) 두 가지 느낌이 같이 들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원섭섭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이완근 : 학교가 새장 같다고 느끼셨던 것은 아니죠? (웃음)

호문혁 : 그래도 뭔가 모르게 내가 제도권에 들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정년을 맞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프리랜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갈 때 신고 안 해도 되고. (일동 웃음) 그런 게 사소하게 보이겠지만 정작 겪으니까 ‘새장에서 풀려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상일 : 제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호문혁’ 교수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호?”라고 하면서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떻게 호씨(胡氏) 조상님께서 한반도에 오셨고, 언제 서울에 정착하셨는지, 역사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호문혁 : 성이 희성이다 보니까 곤란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 이름을 얘기하면 제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허 씨로 둔갑을 하고, 홍 씨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러 성씨가 족보 상으로 중국에서 왔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다른 성씨에 비하면 비교적 늦게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 조상님이 명나라 말에 한림학사 벼슬을 하셨는데, 겨울에 동지사(冬至使), 즉 사신으로 조선에 오셨다가 그 사이에 명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오랑캐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조선에 남으셨습니다. 중시조께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오랑캐를 물리치면...’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풍수지리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지형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함경남도 북청이었답니다. 거기에 정착하셨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조선에서 작고하셨지요. 대대로 거기서 살다가 해방 뒤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집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외가댁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6.25 전에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자리를 잡고 제가 48년에 태어났는데, 식구들이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6.25가 터졌어요. 걸어서 피난을 가는데 경기도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북한군이 앞질러 가게 되었지요. 할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폭격으로 돌아가셨어요. 1.4후퇴 때 기차 타고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어요. 우리가 4형제였는데, 나는 당시에 세 살이고 바로 위의 형이 여섯 살이라 형은 걸어서 가고 나는 업혀서 피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이런 비극도 겪었습니다.

김상일 :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사신 곳이 신촌에서 산 넘어 북아현동이라고 들었는데요.

호문혁 : 서울 수복을 했어도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원에서 좀 지내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서울로 돌아왔지요. 처음에 원효로에 살다가 북아현동에 집을 구해서 그쪽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유년생활, 중고교시절〉

김상일 : 그러면 주로 북아현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유년시절에 특별한 기억이나 사건이 있으신지요?

호문혁 : 북아현동은 바로 안산 기슭에 있는데, 상당히 동네가 좋았어요. 북쪽으로 산이 둘러져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산기슭에 북짓물이란 약수터가 있는데 당시 수도 사정이 엉망이어서 물 뜨러 가기도 하고, 안산에 자주 올라가곤 했지요. 다들 가난할 때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내가 다닌 학교가 북성국민학교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똥통학교’라고 우리를 놀리곤 했어요. 북아현동에서 서대문 쪽으로 나가면 미동국민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좋은 학교였고, 거기서 광화문 쪽으로 더 나가면 덕수, 수송 등 이른바 굉장한 명문학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재주를 부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형은 미동국민 학교에 보내셨어요. 나도 처음에 거기 보내려고 하셨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도저히 집에서 더 먼 학교에는 못 보내겠다 해서 가까운 북성국민학교에 넣으셨죠. 그래도 아마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것이, 북성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는 경기중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상일 : 이제 중·고교시절을 회상해 보시죠. 그동안에 영향을 크게 주셨던 선생님이 있으셨는지요?

호문혁 : 중학교를 61년에 입학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없게 보냈어요. 그냥 학교-집 왔다 갔다 하고, 내 성격이 그래서 특별히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검도반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우리 외삼촌들 영향이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생각이 일찍 깬 분이셔서 해방 전에 외삼촌 형제를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이 양반들이 일본에서 검도를 했는데, 검도 도장의 사범이 작은 외삼촌이 뛰어나다고, 조선인만 아니면 후계자로 삼았을텐데,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검을 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크면 검도를 해야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1 때 검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노사범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검도를 지도해주셨어요. 말하자면 그분의 충애를 받았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무릎이 고장나서 양쪽을 다 수술하는 바람에 검도를 포기했지요. 그때 갖고 다니던 죽검은 아직도 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은 추성구 선생님이라고 지리 담당하시던 분입니다. 키가 아주 작았는데, 안경 쓰시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이셨지요. 중2, 중3 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3 때 한 번 우리 반 성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키도 작은 양반이 어디서 찾았는지 각목을 들고 와서 3학년 들어 성적이 계속 오른 친구 하나만 빼고 우리를 모두 불러 정신 차리라고 종아리를 다섯 대씩 후려치셨는데, 다들 종아리가 거북이 등처럼 거무죽죽하게 멍이 들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게, 그때 그렇게 맞고 나서 왜 그렇게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던지, 전무후무한 경험이었는데요. 하교 때 마음이 무척 흥가분해서 친구들과하고 운동장 나가서 시커멓게 된 다리를 가지고 달리기 연습도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자면, 우리 평준화 이전 세대가 당시 교육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이 이야기는 대학신문에 칼럼으로 쓴 적도 있었는데, 고1 때, 그러니까 1964년인데, 국어 시간에 송재주 선생님께서 각 분단별로 숙제를 내주셨어요. <레미제라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장 크리스토프>, <전쟁과 평화>, 이런 대작들을 읽고 한 달 뒤에 발표를 하라는 숙제를 내주신 겁니다. 우리 분단에 지정된 게 <장 크리스토프>였는데, 광화문에 송문사라고 아주 오래된 서점이 있었어요. 거길 가서 정음사에서 낸 세 권짜리를 샀어요. 글씨도 깨알 같은데, 엄청나게 분량이 많았어요. 고1 학생이 읽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장 크리스토프라는 인물이 베토벤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작곡가로서 자기의 음악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온갖 비리와 음모를 상대로 투쟁을 해 나가고, 나중에 파리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양이 많기도 해서 한 달 안에 다 못 읽었어요. 우리 분단에서 다른 학생이 아주 요약 잘해서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권짜리 요약본을 보고 했더라고요. (일동 웃음) 나는 발표는 못했지만 어쨌든 늦게나마 끝까지 다 읽었어요. 장 크리스토프라는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과 투쟁하고 사랑도 하고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죽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는데, 다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 높은 산에서 넓은 들과 유유히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대작을 읽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옆 분단 숙제였던 <레미제라블>도 세 권짜리를 사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사서 읽고, 그렇게 대작을 계속 읽어나간 겁니다. 그때 내 사고방식이라든지 인생관이라는 게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학 입시 첫 해에 실패했을 때 아무 고통 없이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장 크리스토프>의 영향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저자인 로맹 롤랑이 스피노자라든지 범신론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인도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불교에 정통한 헤르만 헤세와도 절친했어요. 내가 불교를 믿게 된 것도 그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효과가 생겼는데, 고2 2학기부터 대입 모의고사를 치기 시작했어요. 고2 때에는 서울대 입시 다섯 과목 중에서 국영수를 본고사 수준으로 봤어요. 시험을 보면 평균이 거의 3~40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깜짝 놀란 게, 수학 30 몇점, 영어 40 몇점 이랬는데 국어가 78점이 나왔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봐도 비슷한 점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가 고3이 되어서도 국어는 계속 그 점수가 유지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국어공부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봐도 난 공부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고3 애들한테 지금부터 <장 크리스토프>랑 <레미제라블>을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일동 웃음) 아무런 도움을 못 줬죠. 아무튼 당시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박사도 계셨고, 특히 세계사를 가르치신 김두호 선생님은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역사를 몇 년에 뭐가 있었고, 이전에 사법시험에도 나왔던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의 권수는?” 뭐 이런 식의 것은 전혀 안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땠고, 희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진짜 역사를 역사답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참 잘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 대입에서 떨어졌어요. 원서 낼 때 학교성적이 국어만 좋았지 다른 과목은 별로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서 “너 이 성적 가지고 법대 행정학과는 가겠지만 법학과는 좀 곤란하니 안전하게 행정학과에 넣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방심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마음 한 구석에서 ‘행정학과는 되겠다’ 하고 방심하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당시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양녕학원, 대성학원 같은 유명한 학원에 다녔어요. 나는 떨어지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학원에 안 가고 남산시립도서관, 5층짜리 큰 건물인데, 거기 갔더니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도서관 천장도 높지, 사방이 탁 트여 있지, 앞에 나가면 한 쪽은 남산이, 다른 쪽은 한강이 보이지, 거기서 일 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유연견 남산(悠然見南山)이라고 유유자적, 즐겁게 재수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학원은 딱 두 번 갔는데, 내가 독일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8월쯤 독일어 학원에 갔습니다. 두 달 코스였는데 교재도 좋고 선생님도 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다녀 보니까 독일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싶어서 두 번째 달에는 안 다녔지요. 11월쯤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코리아 헤럴드 학원의 서머셋 모음(Somerseset Maugham)의 <서명업>을 교재로 강독을 하는 반에 들어가서 두어 달 다니고,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에는 법학과에 원서를 냈죠. 재수할 때 학교에서 배려를 해 줘서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 치는 시간에 재수생들은 도서관에 모여서 같은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성적을 고3생들과 비교해 주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첫 모의고사에서 고3 최상위권하고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만 유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른바 ‘재수생 분위기’에 젖지 않고 따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성적이 유지되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극복했지요. 그리고 나서 원서 낼 때 재수생 담당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작년에 행정학과 냈는데, 올해는 법학과를 내? 재수한 주제에 높여?”, 그러셔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1968년에 무사히 법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일동 박수)

김상일 :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경기고 나온 거 다 아시죠? 당시에는 경기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경기고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에서 해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들어가시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호문혁 : 경기중을 다닌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경기고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엄경섭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의욕이 있으셔서 반에서 경기중 보낼 만한 학생 셋을 딱 뽑았어요. 나를 포함해서 셋이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저한테는 산수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니 열심히 연습하 라면서 문제집을 하나 주셨어요. “너 정도 되면 경기중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사대부중에 중학교 특차입학이 있었습니다. 다른 중학교 시험 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치는데, 면접시험 날짜가 중학교 1차 입시날짜와 같았어요. 중복 합격을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특차에 가서 합격한 친구는 고민을 해야 했어요. 내가 담임선생님께 “특차시험 한번 볼까요?”했더니 담임선생님이 경기 될 테니 보지 말라고 하셔서 안 봤지요.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셨어요. 가서 생각 없이 시험 치니까 합격하더라고요.

김상일 : 라디오에서 합격자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호문혁 :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김상일 : 전에 선생님 연구실에서 ‘화동’이라고 하는 고교시절 문학잡지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호문혁 : 경기고등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이 ‘화동’이었어요. 그래서 교가도 “이 서울 이름 높은 화동 언덕에”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경기고가 영동 봉은사 뒤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교가를 바꿔라, “이 서울 땅값 높은 영동 언덕에”, (일동 웃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지요.

김상일 : 경기고가 워낙 명문이어서, 당시 같이 다녔던 동기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호문혁 : 기억에 남는 친구는 많이 있죠.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친구들이 활약했지요. 지금은 많이 은퇴했지만. 다 언급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 학교 목표가, 한 학년이 480명이었는데, 서울대에 300명+a로 합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300명을 못 넘겼는데, 우리 때 300명을 드디어 넘겼어요. 그런데 저는 떨어졌어요. (웃음)

〈법대 진학〉

김상일 : 법학과 진학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투적인 질문 같습디다만, 법학과에 진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호문혁 : 전에도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떤 멋있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다가 다들 실망을 하더군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국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을 가도 국어학을 해야겠다, 특히 내 나뉠으로는 우리말 어원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2 말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은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읽은 최현배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원을 한번 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2 말쯤 되니까 학교에서 진학 희망 학과를 써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국어국문 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검은 구름이 드리우더니 (일동 웃음) 작은형님이 나를 앉혀놓고 한참을 설득하더군요. “아직은 우리 집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함경도에서 내려와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 가족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는 좀 희생을

하고 우리 후대,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열변을 토했는데, 나한테는 접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말에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지 결국은 생각을 바꾸었지요. 하루는 교실에 앉았는데, 책상하고 결상하고 붙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것이 좀 비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앞자리 결상이 걸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한테 내 책상 바로 놓게 좀 당겨 달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나를 쏘 보더니 “야! 너 법대 가라.”고 그러더라고. (일동 웃음) 그래서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가 왜 나보고 법대 가라고 그랬지? 이상하다’ 그 생각이 자꾸 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럼 가볼까?’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법대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면서 법대라고 썼는데, 그 얘기를 식구들한테 하니깐 식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래 봤자 결과적으로는 학교 선생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하여튼 법대를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웃음) 나한테 법대 가라고 한 친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여행사를 잘 하고 있어요.

〈법대, 대학원 시절〉

김상일 : 선생님, 이제 법대 시절을 좀 회상해주시지요. 동숭동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 데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았을 텐데요.

호문혁 : 여덟 학기를 다니면서 학기 끝까지 다 채운 학기가 두세 학기쯤 되나 그래요. 1학년 때는 학교에서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교양과정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68년에. 우리가 교양과정부 1회인데, 그것을 당시에 태릉 밖 공릉동, 공대에다가 만들었어요. 1학년 때는 거기로 다녔어요. 그리고 법대랑 상대를 묶어서 한 반으로 편성했어요. 거기가 왜 그렇게 멀었는지, 통학이 참 힘들었어요.

김상일 : 지금 서울산업대가 있는 곳이지요?

호문혁 : 그렇지요.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다녔는데, 2학년 때 동숭동 와서부터는 맨날 데모에다가 휴교에다가, 휴교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독서실에 가기도 하고 암자에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정보부 끌려가서 작고하신 최종길 교수님이에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루는 법대 학생들이 한창 데모를 하는데 사복형사가 그 한가운데 들어와서는 학생회장을 잡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같아요. 내가 회장보다 앞에 있었는데,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잠바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고, 법대생들이 그 사람 사지를 들고 학교 안으로 가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복형사가 학생회장 잡으러 들어왔다가 두들겨 맞고 의식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의식이 잘 안 돌아와서 대학병원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그러고 나니까 동대문 경찰서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 분도 법대 선배인데, 하여튼 형사들을 총동원해서 법대 캠퍼스를 완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지요. 밖에서 학교를 포위한 경찰이 “누가 때렸는지 나와라!” 그러기에, 우리는 “모른다, 못나간다!” “안 나오면 우리가 들어간다!” “어디 학교엘 들어오냐!” 이려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 캠퍼스가 신성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감히 발을 못 들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치했는데, 그때 요새 식으로 학생부 학장 하시던 분이 최종길 교수님이셨습니다. 당시에 ‘학생과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셨어요. 최 교수님도 경찰이 캠퍼스 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상을 못하시니까, 경찰한테는 “들어오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야, 어떻게 좀 해보자,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득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밤늦게 우리한테 오셔서는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 어떻게 경찰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쓱해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타협이 되어서 “누가 때렸는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학생 전원의 이름을 적어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 학생 전원의 안전귀가를 보장하라.” 그렇게 해서 각자 노선 별로 나누어서 경찰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지요. 그만큼 캠퍼스라는 곳은 외부권력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게 10월 15일,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동숭동 캠퍼스 철문이 열리더니 어깨들 일고여덟 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들은 뭐냐,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부릉 부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소리냐’하는데, 탱크가 교문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 다음부터는 캠퍼스의 존엄

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걸핏하면 경찰과 군인의 발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게 평생을 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어요.

또 하나 잊지 못할 분이 유기천 교수님인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총장을 하시면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신다고 동대문 경찰서장한테 권총소지허가를 신청하셨다가 기자들한테 들키는 바람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쌍권총 총장’이라고 그랬는데, (웃음) 그분이 당시에는 상당히 친정부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반정부적인 법대 교수들, 대표적으로 황산덕 교수님 같은 분을 해임해 버렸는데 명분은 ‘교수회의 불참’, 뭐 이런 것이었답니다. 하여간 그런 식의 행동으로 상당히 학생들의 비난을 받는 총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고등학생 때여서 신문보도로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대학 들어가서 형사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형사모의재판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분이 독일 가고 안 계셔서 모의 재판 주제를 지금 작고하신 강구진 교수님이 주셨어요. 그 주제가 심장이식수술이었어요. 아직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았는데 뇌사상태에서 심장을 적출하는 것이 살인이나, 뭐 그런 문제를 내셨는데, 우리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심장이식수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의대에 들락날락하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다음 해 4학년 때도 모의재판을 했는데, 당시에는 판사 역할을 4학년 학생들이 했습니다. 직접 판결문도 쓰고 그랬어요. 마침 유기천 교수님께서 귀국을 하셔서 댁에 초대를 받아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쟁쟁한 선배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유 선생님께서 아주 으스스한 케이스를 내주신 거예요. 중앙정보부 직원이 정보부 내에 있는 인사 비리를 국회의원한테 가서 발설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그 사실을 어떤 신문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통째로 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어요. 거기다가 ‘김지하 오적시(五賊詩) 사건’을 추가했어요. 무시무시하던 유신시절 직전에 그런 케이스를 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기천 교수님이 참 야속했던 게, ‘김지하 오적시’를 꽤러디한 것까지는 좋은데 시 제목만 적어주셨어요. 당시 독재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은 을사오적의 적(賊)자를 불일 가치조차도 없다고 시 제목도 ‘오졸(五卒)’이라고. 그런데 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이 시를 지었지요. 그래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이렇게 시를 적어 넣었는데, 여기서 ‘붉은 태양’이 북한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는데 긴장이 되기도 하고, 모처에서 우리 모의재판에 손을 댄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그랬죠. 마지막 날 판사 역을 하는 4학년 셋이 모여서 판결 내용을 합의하는데, 한 학생이

피고인 한 명은 유죄 아니냐고 했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무죄로 합의하고 각자 나누어서 판결문을 썼어요. 나는 오졸시 부분을 맡았는데, 내 나름대로 문학론, 시론을 펼쳐서 무죄판결문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조지훈의 <시의 원리>란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당시에 법대에 큰 강당이 없어서 문리대 강당에서 모의재판을 했고 유기천 교수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계셨는데, “피고인 전원 무죄”라고 판결하니까 박수를 치시면서 “최고의 명판결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그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서 반독재, 반정부로 돌아서신 거죠. 그래서 누가 궁금해서 여쭙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총장을 할 때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독재가 공산주의자를 키운다. 인도네시아에 수카르노라고 오래 전에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 공산주의자들이 우글우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독재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교수님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가셨는데, 강구진 교수님께 엽서를 한 장 보내셨더라고요. 프라이부르크 근교 토트나우베르크(Todnauberg)라는 예쁜 마을에 하이데거 별장이 있어요. 자손들이 거기에 자주 와서 주말이나 휴가를 즐기고 하지요. 별장 옆에 아주 예쁜 오솔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마르틴 하이데거 벡(Martin-Heidegger-Weg)이에요. 유 선생님이 그 길을 거닐다가 엽서를 쓰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길에 하이데거 같은 ‘자’의 이름을 붙이다니.” (일동 웃음) ‘하이데거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러시나’ 알고 봤더니 하이데거가 나치 협력자였어요. 프라이부르크대 총장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나치즘을 선전하기도 했고. 유 선생님이 이처럼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무시무시한 케이스를 내주시고, 같이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즈음에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학생회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강의실에서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다!”라고 일갈하시고, 얼마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통제를 획책하고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시고는 미국으로 가버리셨지요. 대학시절에 잊지 못할 큰 얘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걸다리 얘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학년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의재판을 하려면 어쨌거나 여학생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대 법대에 가서 여학생을 초빙해다가 했어요. 당시에 서울법대 형사모의재판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동양텔레비전, 즉 TBS TV에서 녹화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방송국에서 1970년, 우리가 3학년 때까지는 중계를 해주었는데, 4학년 때는 모의재판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중계를 못해 주겠다고 거예요. (일동 웃음) 어쨌든 3학년 때 여학생을 모셔오려고 이대 법대에 갔다가 거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학과장 하시던 어떤 교수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대 법대에서 서울 법대로 보낼 때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서울대 가서 대등하게 변호사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 가정부,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지요, 아니면 강간당한 여자 이런 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동 웃음) 그래서 이 분이 화가 많이 나서서 “자네들 가알 프렌드나 데려다 시키게!” (일동 웃음) 해서 허탕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지요. “길 건너가자!” 길 건너가면 서울 미대였거든요. “가서 뭐라고 할 건데?” 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말하자!” (일동 웃음) 그래서 미대 여학생 몇 명 불러와서 모의재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제대로 이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온 여학생들 중에 두어 명은 지금 이대에서 원로교수로 있어요.

김상일 : 유기천 교수님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유기천 교수님 외에 주로 어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셨는지요? 소송법은 어느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셨는지, 혹시 그 당시에 소송법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호문혁 : 그때는 소송법을 2학기씩 네 학기를 했습니다. 3학년 두 학기, 4학년 두 학기, 이렇게요. 당시 우리 전임교수님이 이시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에 올라갔더니 이시운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고등법원 판사셨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줄리기만 하고 (웃음). 그래서 정말 재미없게 한 학기를 보냈는데, 2학기가 되니까 이시운 선생님이 독일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독일 에어랑엔(Erlangen)에 1년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이시운 선생님 강의가 아주 박력이 있잖아요. 민사소송법 강의도 재밌게 들었지만 그때 법대에 ‘독일법 특강’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그 과목을 이시운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첫 달에는 독일의 법원조직이라든지 사법제도를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송물이론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주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주제로 박사논문도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야! 소송법도 이렇게 재미있구나!’ (웃음) 그전까지는 형사법학회를 하면서 형사법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시윤 선생님 소송법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소송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학년 1학기 올라갔더니 다시 처음 뵙는 분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김홍규 교수님으로 당시 충남대 교수님이셨는데,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성실하게 강의를 하셨어요. 크게 재미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웃음) 열성만큼은 대단하셨죠. 그분한테 두 학기를 배우고,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교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상일 : 이시윤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요?

호문혁 : 독일 갔다 오셔서 한 학기 가르치시고 법원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웃음) ‘어떻게 하나’ 하다가 행정실에 물어봤더니 그럴 때는 임시로 학장님을 지도교수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당시 학장님이 서돈각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서돈각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해놓고 1년간 대학원을 다녔어요. 민소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당시에 민소 강의를 나오신 분이 대법관인 방순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의를 나오셨다가보다는 우리가 찾아뵙는 거였는데, (일동 웃음) 당시에 대체로 외부 강사가 오면 분위기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도 어려우니까 (일동 웃음) 가끔씩 대법원으로 찾아뵙는 거예요. 찾아뵙고 이런 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기말 리포트는 어떻게 할까요?” 여쭙으면 “자네가 알아서 써오게.”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리포트를 써서 또 찾아뵙지요. 가서 또 좋은 말씀 듣고. (일동 웃음) 그때 리포트를 꽤 열심히 썼어요. 당시에 워드프로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200자 원고지에 손으로 썼는데, 기말리포트 쓰다가 잘못 쓴 부분 있으면 두 줄 긋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버리고 새로 쓰고, 그렇게 썼지요. 첫 학기 리포트를 ‘기관력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140매를 써서 냈습니다. 그때는 독일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보니까 일본책이 아주 그럴듯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번역해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고 (웃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리포트를 열심히 써서 제출해서 A학점을 받았고, 둘째 학기에는 ‘청구변경’을 주제로 리포트를 썼어요. 그때 같이 수강했던 1년 선배가 있었는데, 두 학기 모두 나는 A를 받고 그 선배는 B를 받았습시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첫 학기 때 그 선배가 “나는 열심히 썼는데, B를 받았다”고 하기에 내가 “몇 매를 쓰셨는데요?” 물어봤더니 120매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140매를 썼거든요. (일동 웃음) 그 다음 학기에 또 그 선배가 B를 받았기에 몇 매를 쓰셨느냐고 또 물어보니까 140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160매를 썼거든요. (일동 웃음) 분량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방순원 대법관님 찾아뵙고, 좋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찾아뵈면 시국을 개탄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아주 고지식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2학년 올라갔을 때 송상현 교수님이 전임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동기 한 명하고 연구실에 찾아뵈었죠. 그때 한창 젊으셨는데, 전공학생이라고 찾아뵙고 지도교수로 모시겠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첫 말씀이 “나를 지도교수로 한 것, 후회하지 마!” (일동 웃음) 그래서 겁을 잔뜩 먹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일 : 석사논문이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였죠? 기말 리포트를 바탕으로 쓰신 건가요?

호문혁 : 그게 상당히 바탕이 되었죠. 그리고 아까 ‘청구변경’으로도 리포트를 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영남대에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논문을 내라고 하기에 3~4년 전에 썼던 리포트를 보완해서 급히 사법행정에다가 두 차례 걸쳐 게재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임이 되었죠. 내가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대학원 시절 리포트를 잘 남겨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남대 시절, 결혼〉

김상일 : 영남대에 가실 때는 박사과정 학생이셨던 거죠? 영남대에 가시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호문혁 : 박사과정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민사법 조교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송상현 교수님께서 지나가시기에 여쭙보니까 “그거 좋은 거니까 해!”라고 하셔서 원서를 냈는데, 그때 사회법하고 민사법하고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 친구하고 같이 합격이 되었어요. 이 친구는 학생 때

학생회 간부로 데모를 한 경력 때문에 결국 발령이 안 났어요. 나는 데모를 열심히 안 해서 민사법 조교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민사법 원로 교수님이 김증한 교수님이셨어요. 당시에는 공무원 발령을 받으려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신원조회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12월 초에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받을 때까지는 김증한 선생님 방에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심현섭 선생님께서 집에 가시다가 “호 선생, 전공이 뭔가?” 물으시더라고요.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 그래? 왜 그거 몰랐지?” 하시더라고요. 영남대에서 민사소송법 가르칠 사람을 구하려고 서울에 사절단이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와서 심현섭 교수님하고 정희철 교수님께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라고 답하셨습니다. (일동 웃음) 그래서 허탕치고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독일 갈 생각인가?” 물어보시기에 “예!”라고 답변드리니까 “독일 갈 사람을 지방대학에 보내도 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상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쭙봤더니 “그런 거 있으면 가야지!” (일동 웃음) 그러시더니 내 손을 붙잡고 심현섭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서는 애 좀 잘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심현섭 교수님이 연락을 하였고, 영남대에서 한번 와 보라고 해서 대구에 내려갔죠. 그때 생전 대구 땅을 처음 밟아 보는 거였어요. 6.25때도 대구에는 안 가봤어요. (웃음) 그래서 무사히 일이 잘 되고, 나이 많은 선배들이 준비해서 편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모자라 78년 3월부터는 전임강사 대우였고 그해 9월에 전임강사로 정식 발령을 받았죠.

김상일 : 영남대 가시고 난 후에 취직도 했으니까 부모님께서 장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과 만나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주세요.

호문혁 : 총각으로 내려갔더니, 영남대에서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일동 웃음) 고등학교 30년 선배가 거기 계셨는데, 나한테 약대 학장님 따님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 안 따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궁합을 좀 보시는 편이라서 그쪽 사주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하시더니 며칠 뒤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다시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웃음) 부모님께서 보시더니 궁합이 좀 별로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딱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생각했죠. 그때 나는 ‘룸비니’라고 불고 공부하는 단체에서 일반부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법회보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나와 같이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 오면 큰형님 댁에 머물렀지요. 하루는 큰형님 댁에 갔더니 친척 아주머니가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큰둥했지만 어쨌든 약속은 되었으니까 나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국군의 날, 10월 1일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한 다방에서 만났는데, 나는 큰형님하고 형수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친척 아주머니도 안 나오시고, 계속 기다리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마침 저쪽에 대학 친구 두 명이 있어서 오면 부르라고 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30분 정도 늦게 아주머니가 오셔서 상대방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국군의 날 행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늦게 오신 거였지요. 집사람은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원래는 시집을 안 간다고 하는 것을 겨우 꼬여서 맛있는 것도 사 준다고 해서 나온 거였고요. 저쪽에서도 와서 한참을 두리번두리번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랑감 같은 사람이 없고, 한 쪽에 웬 사람 둘이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딱 보더니 “내가 저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시집가느니 평생을 시집 안 가고 늙어 죽겠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나가려는 참에 친척 아주머니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제 큰형님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일동 웃음) 큰 형님이 나보다 11살이 위거든요. 첫인상은 참 맘에 안 들었어요. (일동 웃음) 비쩍 마르고 파리해 보였어요. 저쪽은 또 저쪽대로 내가 여름에 대구에서 얼굴이 까맣게 탄 데다가 그날 면도도 안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웬 저런 촌답 같은 게 나왔느냐는 생각을 했대요. 양쪽 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근처에 양식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집사람은 이미 심사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걸 깨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시력도 안 좋고, 불면증도 있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에 선 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수법을 썼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어라, 저 여자 참 솔직하네. 보기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쪽에서는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 촌답인 줄 알았는데, 식사 매너는 괜찮네.’라고 생각했대요. (일동 웃음) 그래서 처음부터 착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착각

에 착각을 하다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중매하는 사람이 중간에 거짓말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서울에 다시 올라가니까, 아주머니께서 내가 연락하기를 저쪽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불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사람은 세 번은 만나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동 웃음) 만나자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척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일동 웃음) 한번은 시청 앞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좀 바쁜 상황에서 대구 내려가는 기차 타기 전에 잠깐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약속한 거였는데, 무슨 일인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도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계속 거기 앉아 있었죠. 그런데 한 시간 이상 늦게 나타났어요. ‘이 남자 이제는 갔겠지.’ 별로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와 본 건데, 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화도 전혀 안 내면서. 그것도 그럴 것이 어차피 기차 타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었거든요. (일동 웃음)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식으로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김상일 : 그 착각이 요즘 말로 하면 ‘콩깍지’인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영남대에서는 몇 년을 계셨던 건가요?

호문혁 : 1978년부터 3년 있었어요. 그 뒤에 독일유학을 갔지요.

김상일 :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도 영남대에서 강의하셨다면서요.

호문혁 : 영남대 가서 1년 만에 결혼을 한 건데요, 집사람이 석사학위도 있고 공부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마침 전공과목 강의를 가정대학 쪽에 있다고 해서 강의를 좀 했죠. 그런데 영남대에 2부 대학이 있어서 야간 강의를 있었어요. 집사람이 강의 할 때는 내가 연구실에서 기다리다가 가정대 근처로 가서 만나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곤 했지요.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 하면, 호 교수가 장가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정대 모 강사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일동 웃음) 나중에 한 학생이 무지 궁금한 표정으로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사람이라고 얘기해줬지요. (일동 웃음)

〈독일유학준비〉

김상일 : 영남대 가시면서 독일 유학을 생각하고 가셨던 거죠?

호문혁 : 그렇지요.

김상일 :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호문혁 : 사실 내려가기 전에 조교로 있으면서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가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가등록을 한 상태에서 대구로 내려갔던 거예요. 대구에는 독일어 배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대구에서 가까운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신부, 수녀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중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왜관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어 공부를 한 거지요. 그분이 나중에는 대구에 파티마 병원이라고 카톨릭에서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부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대구에서 독일어를 배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하시느냐고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금지령을 내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독일 가려고 서류 준비할 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상일 : 과외금지조치가 80년 7월 30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되었어요. 그러면 독일의 많은 도시 중에서 하필이면 프라이부르크에 가신 것이 아렌스(Peter Arens) 선생님 때문이었나요?

호문혁 : 그전에 영남대에 있을 때, 그때는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2부대학 학생 중 직장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도 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비슷한 또래가 와서 가르친다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첫 해에 학생대표가 오더니 모의재판을 하자고 했어요. 영남대는 과거의 대구대와 청구대가 통합한, 꽤 전통이 있고 괜찮은 대학인데, 오래 전에는

모의재판을 했다고 했어요. 첫 해는 잘 안되었는데, 둘째, 셋째 해에는 민사모의재판을 했어요. 그것을 지도할 때 대학시절에 형사모의재판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하고, 같이 했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여러 분야로 잘 진출했지요. 그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국회의원, 변호사, 중견 기업의 임원, 경찰 간부 등 쟁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팀이 지금도 모입니다. 일 년에 한 두 번씩 모여서 한 잔 하고, 어제 정년식에도 그중 다섯 명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영남대 있을 때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어요.

독일어 공부는 어차피 독일에 가야 하니까 했는데, 사실은 프라이부르크의 아렌스 교수님과 연결되는 데 정보를 주신 분이 최종고 교수님이었어요. 내가 조교할 때 최 교수님이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나한테 프라이부르크 자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독일 어디에 갈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정보가 참 없을 때여서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에 가서 독일에 있는 법대 리스트를 복사해 와서 보던 시절이었는데, 최 교수님이 프라이부르크의 아렌스 교수님을 추천해 주시기에 그 이유를 여쭙보니까 외국에서 온 학자들에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교수들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중에는 “당신이 나에게 와서 공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한 줄짜리 답변을 주신 교수도 있었는데, 제일 친절하게 답장을 써주신 분이 아렌스 교수님이셨어요. 내가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훔볼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최종고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렌스 교수님하고만 접촉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 가게 된 거예요.

〈독일 유학〉

김상일 : 어학을 배우실 때 다른 도시에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호문혁 : 1981년에 처음 갔을 때는 만하임에 넉 달 동안 있었죠. 처음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짐사람하고 돌 지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처음에 가서 참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지요. 식구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 같은 집 아래층에 사는 젊은 독일 사람들이 도와주

기도 하고, 어쨌든 가는 데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처음 가는 사람이 식구를 데리고 가니까 남편으로서 체면이 잘 안 서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상점에 프락투어(Fraktur) 글자로 A를 쓴 것이 있고 간판에는 Apotheke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야자수 사진도 있고. 그런데 집사람이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기에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독일로 유학을 생각을 했느냐고, 핀잔도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깐 그게 약국이더라구요. (웃음)

김상일 : 4개월 어학 마치신 다음에 프라이부르크로 가셨는지요?

호문혁 : 처음 만하임에 가서도 집을 못 구해서 열흘간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주인을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딸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아기 침대가 필요했는데, 자기네는 그런 게 없으면서 새것을 하나 사다가 방에 넣어줬어요. 빨래도 못하고 있으니깐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빨래도 따로 해주시고,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어요. 나중에 프라이부르크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만하임에 한번 들렀어요. 그 사장님을 반갑게 만났는데, “당신 딸이 그 침대 사용한 후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지요. 그리고 만하임에서 독일문화원 다니는 동안에 아렌스 교수님 편지를 받았어요. 프라이부르크에 놀러오라고. 그 당시 내가 참 촌스러웠던 것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당연히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하시기에 ‘하룻밤 자고 오는가보다’ 생각하고 짐을 좀 싸서 갔어요.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지요. 독일에서는 그때 이미 기차가 시속 200km로 달렸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랐죠. 그때 만나서 한 얘기가 “독일 와서 첫 인상이 어땠느냐?”고 물어보시기에 “독일 요새 젊은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지런하지 않다. 절약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이 양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천 년 전부터 해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동 웃음) 한 수 배웠죠. 어학 마치고는 프라이부르크로 이사를 갔지요.

김상일 : 프라이부르크 정착하셨을 때 어려움이 많으셨는지요?

호문혁 : 역시 많았지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했는데, 두 달 정도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드레스덴 대학 교수로 간 조교가 뤼케(Lüke)인데 이 친구가 학생기숙사 지하실에 방 두 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20m정도 떨어진 방 두 개를.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하임에 있을 때, 우리나라 배구선수 출신인데, 대신고등학교 배구 감독으로 백 몇십 연승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독일 여자국가대표 배구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박대희 선생님이 라고. 그분을 우연히 알게 돼서 김치와 밥도 먹을 수 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프라이부르크로 이사 올 때 그 분이 배구클럽 차를 운전해서 왔어요. 안내해준 대로 기숙사에 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 양반이 성질이 불같은데, 뤼케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화를 버럭 내신 거예요. 방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이라면 겁을 잔뜩 먹었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급하게 방을 알아봤는데, 노부부가 사는 집 꼭대기 층을 임시로 얻어줬어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중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완전 우리 딸아이 할머니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한테도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들 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애들도 자주 봐주시고. 정말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덕분에 어려움이 좀 덜했고, 나중에 두어 달 뒤에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살았지요.

김상일 : 프라이부르크 초기의 연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문혁 : 앞에 말했듯이 처음에 이사를 여러 번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렌스 선생님이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셔서 ‘밥 사주시는가보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분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저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신데, 나중에 나한테 그 동안 뭘 읽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느라고 책을 별로 못 읽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깐, 이 양반이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지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밥 먹자.” 그러시면 그동안 읽었던 것을 몇 장으로 요약해서 열심히 타이핑해서 가져갔지요.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자꾸 채찍질을 하시니까 긴장도 되고, 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랬지요.

김상일 : 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아렌스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나요?

호문혁 : 학위논문 주제를 정할 때 처음에 내가 가져갔던 게 ‘소송물론’이었어요. 나중에 일 년 정도 지나고 학위논문을 쓰게 되었을 때, 소송물론을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나쁜 제목 가지고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늦어지더라도 좋은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관한 주제로 쓰려면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속으로 ‘제대로 걸렸다’ 했지요. 얼마 뒤에 “확인의 소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찾아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정했는데, 쓰다보니까 ‘주제를 참 잘 잡았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송법의 핵심이 되는, 온갖 문제의 진원지가 되는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김상일 : 논문 완성하실 때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호문혁 : 역시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아렌스 교수님의 채찍질이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웃음) 그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부활절 휴가 기간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이럴 때 좀 여행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그런 곳에 갈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가까운 데, 차로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스위스나 알자스 지방 같은 데는 다녀왔지만, 먼 데라고는 한번 기회 잡아서 파리 갔다 온 적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자 해서 여행책자를 하나 사서 예습도 좀 하면서 여행준비를 하는데, 부활절 휴가 시작 전날 밤 11시쯤에 아렌스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웃음) 독일 사람들은 밤 8시 이후에 남의 집에 전화하는 것은 결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둘 다 올빼미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전화를 하자고 서로 양해가 되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전화를 거셔서 “휴가 때 뭐하는가?”고 물으시기에 “이번에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런던에 가서 코벤트 가든에서 무슨 무슨 오페라를 볼 거라고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전화 마지막에 “이탈리아 잘 다녀오라”라고 얘기하면서 끊기 전에 “갔다 와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래서 여행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또 공부하고 타이핑했지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와서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전날 밤에 전화를 거셔서 “휴가 끝나고 밥 먹자”고 하시고, 한 두어 번 당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려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무리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가족 있는 사람 생각을 조금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더니 집사람도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수님이 “내가 강의 있는 날에만 학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날에는 연구실이 비어 있으니 연구실에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타자기도 있고 조용히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이 도서관도 있고. 나중에 이 양반이 강의하러 오시더니 “내 방에서 누군가가 학문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참 즐겁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동 웃음) 어느 날 내 논문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시더니 “지금부터는 단 한 페이지가 아니라 단 한 줄도 읽으면 안 된다. 읽는 것은 절대 금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저런 중요한 문헌을 아직 읽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면서 목차는 잡아놨고 책을 읽으면서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을 타이핑을 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동안 정리했던 자료들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쓰기 시작해서 석 달 만에 초고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했던 것은 안 보이잖아요. 쓰기 시작한 것 이후 것만 보이니까, 나중에 나보고 “당신 정말 논문 석 달 만에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웃음) 초고를 제출하고 심사하면서 수정사항을 적어 주시는데, 아렌스 교수님 글씨가 천하의 명필이거든요. (웃음) 필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일동 웃음)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비서밖에 없어요. 혹시 비서가 자리를 비웠다 하면 조교들이 그 글씨를 해독하려고 심포지엄을 열어요. (일동 웃음) 수정 지시한 것을 그때 보통 타자기로 다 쳐서 고치려면 못했을 거예요. 그때 아주 초보적인 워드프로세서로 작업을 했지요. 성능 좋은 전동 휠타자기가 나왔는데, 한 페이지 정도는 메모리가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당시 가격으로 꽤 비싸게 주고 샀고, 그 뒤에 박사논문을 빨리 쓰려고 거금을 주고 모니터와 플로피 디스크 두 개 넣는 프로세서를 사서 연결하니까 타자기가 키보드 겸 프린터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서 가져다 냈지요. 또 수정사항 고쳐서 갖다 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도교수 아렌스 선생님한테는 통과가 되고, 부심인 라이폴트

(Dieter Leipold)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양반도 참 꼼꼼히 잘 읽어주셨어요. 한번은 내가 아렌스 선생님이 고치라는 것을 밤을 새고 고치다가 졸려서 도저히 못 버티고 잤는데, 집사람이 내가 불쌍하다고 타자를 쳐 주다가 내가 각주를 추가하려고 손으로 끄적거린 것을 아무리 봐도 무슨 글씨인지 몰라서 빼놓았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라이폴트 선생님이 쓰신 심사의견 중 하나가 “참고문헌에 있는 문헌이 본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웃음) 그런 것까지 집어내는 분이셨어요. 마침 그때 서울대에서 공채 공고가 났어요. 더 급하게 된 거죠. 나중에 구술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공 외에 두 개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민법하고 법제사를 선택했어요. 아렌스 선생님이 바로 그 달 안에 일정을 다 잡아주셨어요. 민법은 뮐러-프라이엔펠스(Müller-Freienfels)라고 아주 나이 많으신 대가이셨는데,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딱 들어가니까 첫 질문이 “권리가 뭐지?” 그러시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래서 갑자기 멍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옛날에 민법총칙 읽었던 것을 떠올리려고 쥐어짜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비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거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가 의사표시다’, 그리고 ‘권리라는 것이 의사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게 민사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법제사 시험은 크뢰셀(Kroeschell) 교수한테 봤는데, 그 양반 세미나를 내가 여러 번 들어갔어요. 블록세미나도 가고, 재미있더라고요. 18세기, 19세기 법사를 배웠는데, 그래서 그 시험은 별 문제없이 무사히 지나갔지요. 정작 지도 교수인 아렌스 교수님한테 갔더니 평소와는 달리 질문을 어쩌나 기관총처럼 쏘대시는지, 진땀을 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무사히 통과가 되었어요.

김상일 : 독일가신 지 몇 년 만이었나요?

호문혁 : 5년만이었죠. 박사과정 시작까지는 3년. 처음에는 방문학자로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다른 전공의 한국 학생들 중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와서 어학시험을 떨어진 유학생들도 있어서 내가 그러면 되느냐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막상 내가 박사과정 들어가려니 어학시험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느냐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독일에 5년을 있었지만 독일어를 썩 잘한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고, 아렌스 선생님한테도 독일어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게 한 서너 번 되나? 그게 전부 와인 마실 때 술자리에서. (일동 웃음)

김상일 :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아렌스 교수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호문혁 : 글썄요, 아렌스 교수님을 우리 학교 교수님하고 비교하자면, 어떤 면에서 황적인 선생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1학년 때 캠핑을 갔는데, 황적인 선생님은 구두에 넥타이를 매고 오셨어요. (웃음) 아렌스 교수님이 꼭 그런 양반이에요. 소풍(Wanderung) 가서 등산하고 호숫가에서 고기 구워먹고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라이폴트 선생님 같은 분은 바이에른의 사냥꾼 비슷한 옷차림으로 오시는데, 아렌스 선생님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오세요. 그분이 스포츠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예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유일한 스포츠가 책장 넘기면서 눈동자 굴리기입니다.” (일동 웃음)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할 때는 엄하시고, 자상할 때는 또 자상하시고. 이분이 결혼을 안 하시고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아시아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른 게, 아시아 사람들은 왜 장가를 안 갔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특히 일본사람들이 다녀갈 때마다, 왜 장가를 안 가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건데 자꾸 물어보니 싫으셨겠죠. 그런데 한번은 나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왜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야.” 근데 사실 나도 궁금했거든요. (일동 웃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여쭙볼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해답을 얻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스포츠를 안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몇 차례 와인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다섯 가지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둘째,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 셋째, 스포츠를 안 한다.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히틀러가 나치스 집권 때 스포츠를 아주 많이 악용했잖아요. 이분이 굉장한 반나치주의자이셨어요. 마그테부르크라고 동독지역 출신인데, 분단시절에 서쪽에 어머니가 계시고 좀 먼 도시에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느냐고 여쭙봤더니 “그 사람은 나치 협력자여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정말 신념에 투철하구나!’ 깨달았어요. 또 하나가 정말 놀란 것이었는데,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여쭙보니까, 그냥 결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몇 번 술을 같이 마시다가 히틀러 때 얘기가 나오면 이 양반이 표정이 굳어져요. 어느 한 순간에 거의 독백 비슷하게

하는 말씀이 “독일 민족은 번식을 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와,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고, 그 양반의 면모에서 내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죠. 강의실에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평소에 다른 곳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 얘기나 음악 얘기 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상일 : 아렌스 교수님이 서울에 한두 번 정도 오셨죠?

호문혁 : 세 번 오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초청을 해서 일본에는 자주 가셨는데, 그때마다 자비를 들여서 나를 만나려고 꼭 서울에 와요. 오시면 서울대나 법원에서 강연도 하시고, 한번은 제주도 가서 2박 3일 같이 지낸 적도 있어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해서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그때 제주도 가서 당신이 나를 처음 프라이부르크 초청했을 때 나는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줄 알았다는 얘기도 했어요. (일동 웃음)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그럼 불쾌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자동차 살 때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 나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하얀 봉투에 검정 띠가 둘러져 있더라고요. 독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뜯어보니까 아렌스 교수님 부고였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내가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만 있으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작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그렇게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요. 부고장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였어요. 가 보지도 못하고. 1주기 때 찾아갔었죠. 지도교수께서 작고하시니까 완전히 날개 꺾인 새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라이프olt 선생님께서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큰 타격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서울대 부임, 부임 초기 학생담당학장보〉

김상일 : 학위 마치시고 서울대로 부임하시는 과정, 그리고 부임한 초기에 특별히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호문혁 : 그때 사실은 영남대 교수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2년은 휴직을 했지만요. 어쨌든 영남대에서는 내가 오기를 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남대 가서 근무를 좀 하다가 서울대로 옮긴 게 아니고 1986년에 바로 서울대로 오게 됐어요. 서울대에서 채용하기로 결정이 나고, 영남대에 가서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미치겠더라고요. 저 양반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어쨌든 가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대구에 내려갔어요. 가서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때 영남대 출신으로 형법하고 법철학하는 분, 민소교수 구한다고 서울에 사절로 올라왔던 박상원 교수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분께 찾아갔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반가워하니까 말을 더 못 꺼내겠더라고요. (일동 웃음)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사실은… 서울대에 가게 되었습니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분도 혼자 사는 총각이셨는데, 파이프를 딱 물고 한참 심각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으시더니, “가셔야죠. 학계를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어차피 얘기를 해야 하니 당신이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를 대신 해주겠다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같이 학교에 갔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쪽 학교 출신들은 “잘됐다, 축하한다!” 그러시는데, 서울 법대 선배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혼도 났고, 백배사죄도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총장도 만나러 갔더니, 총장은 그전부터 알던 분인데, 축하한다고 점잖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 중 하나가, 학교 월급을 받으면서 외국에 나갔다 왔으면 외국 체류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학교를 옮기면 외국에 있을 때 받은 월급을 다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장이 천천히 형편대로 갚으라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정작 행정실에 갔더니 현금 일시불로 내놓지 않으면 이적동의서를 못 써준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내고 서울대로 옮겼어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영남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어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일동 웃음) 그때 우리 모의재판 멤버였던 어떤 변호사는 영남대 대학원에 가서 민사소송법을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나 없이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서, 지금도 나를 보면 가끔씩 원망을 해요. (웃음)

오정후 : 서울대에 오셔서 초기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호문혁 : 내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대 있으면서 참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도 있어보고 해서 비교가 되는데, 마치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하는 카라얀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선생도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 같아서 학생들 반응이 좋으면 더 신나서 강의를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추임새를 넣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일동 웃음) 눈동자들을 보면 쓱쓱 잘 먹혀들어간다는 것을 느끼니까 나 자신도 굉장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을 계속 느꼈지요. 내가 들어본 중에 최고가 베를린 필하모닉이었기 때문에 거기 지휘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었죠.

와서 얼마 안 돼서 1989년에 학생학장보를 했는데,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화염병 던진 학생들 붙잡혀 가면 면회 가고 빼내 와야 하고. 학생학장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학생 한 명이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남자하고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뽕죽한 돌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했어요. 그런 사고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처리 좀 잘 해보려고 애를 좀 먹었고. 사실은 화염병 던지고 잡혀가고 이런 친구들 쫓아다니다 보니 그런 친구들하고 정도 들기도 했었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다들 한자리들 하더라고요. 그중에 88학번에 맨날 데모하고 돌아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전국단위 회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꽤 거물인 친구인데, 나중에 졸업하고 대우실업에 취직을 했어요. 내가 만났을 때 “그래 재벌이 다 도둑이더냐?” 그랬더니 “아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했어요. “선생님, 밥 사 주세요!” “왜?” “저 사시 1차 붙었어요.” 그래서 사줬지요. (웃음) 그 다음에 또 한참 뒤에 연락이 왔어요. “밥 사 주세요!” “이번에 뭔데?” “2차 붙었어요.” (웃음) 그리고 86학번이 졸업여행을 부활시켰지요. 제주도에 한 140~50명 갔을 거예요. 조별 장기자랑을 하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연극을 한 조도 있었어요. 호문혁이 민사소송 과목에서 F를 받았구나.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 졸업여행에 간 이후로 5년 연속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웃음) 89학번하고는 3학년 수학여행, 4학년 졸업여행 두 번 갔어요.

〈학내 보직〉

오정후 : 말씀하시다 보니까 학생학장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교무부학장, 학장, 대학신문 주간, 이런 보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흔히들 보직을 맡으면 학자의 정체

성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지요.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자로서 연구활동하고 안 맞는 점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요, 보직을 맡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호문혁 : 보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학자로서 연구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빼앗기는 것이고 정신도 많이 빼앗기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역시 보직을 해봐야 교수가 사람이 된다, (웃음) 이런 감도 잡히더라고요. 그냥 혼자 앉아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거의 모르고 그러다가는 자칫 에고이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보직을 하면서 다른 곳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조금 더 종합적인 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니까 그 점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보직을 하면서 전혀 그쪽에 손도 못 대고. 거기다가 보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예를 들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누가 엉터리 소리를 하면 그냥 못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신의칙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신의칙의 전문가처럼 된다는지, 갑자기 채권자대위권 전문가처럼 된다는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학문의 풍토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직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나는 참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구나’, 보직만 맡으면 뭔가 일이 터져요. 아까 말했지만 학생학장보할 때는 폭행치사 사건이 터지고, 화염병으로 하는 데모도 있었고, 한번은 화염병으로 데모하던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알아보니까 서울 중앙지점에 공안 2부인가에 법대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뵈었는데, 직접 알지는 못해서 검사인 내 친구한테 연락해서 미리 얘기를 했지요. 검찰청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대학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검찰총장을 한 정상명이었는데, 왜 왔냐고 묻기에 “학생들이 화염병으로 데모하다가 잡혀서 부장님을 좀 찾아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거 잘 안 될 까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당시 화염병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공안2부장을 만났죠. 그분도 나중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뭐를 잔뜩 준비해놓고 있다가 앉자마자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해도 전경들도 같은 젊은이들인데 화염병으로 화상 입은 사진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으면서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이상하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의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염병을 던지는 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고 앉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기에 “근데요, 선배님, 우리 애들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놀라더라고요. “선배님은 대학 때 데모 안 했나요? 애네들이 나중에 선배님같이 될 수도 있는데 처벌해서 흠집이 남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튼 별짓을 다했어요. 한번은 농활을 갔는데, 그때 법대생들은 충남 홍성에 갔어요. 학생학장보가 같이 가서 일박을 하든가, 잠시 갔다 오든가, 가서 학생들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은 “큰일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마을의 이장이 학생들을 안 받겠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마.” 하고 학생주임하고 같이 이장집을 찾아갔는데 외출하고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다시 찾아갔는데, 집안 거실에 ‘대한 반공연맹’ 뭐 이런 걸 잔뜩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성향을 파악했지요. 만났더니 이장이 학생 놈들이 말이지 버릇도 없고,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상교육만 시키고, 어느 학교에서인가 학생이 교수를 폭행한 그 사건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어찌고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근데요, 이장님, 저희 학생은 안 그렇거든요. 저희 학생은 그런 학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애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거물들이 될 학생인데, 애들이 공부만 해서 농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농촌에 와서 이런 경험이라도 해야 농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 농촌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어요? 지금 재네들을 쫓아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애네들이 나중에 큰 자리 갔을 때 농촌에 대해서 이상한 정책을 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입이 헤 벌어지더라고요. “이장님, 제발 애들을 받아서 자~알 좀 가르쳐 주세요.” (일동 웃음)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장한테 가기 전에 이장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봤더니, 마을에서 도로포장할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잘 보이려고, 학생 안 받는 것으로 뭔가 좀 보여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오기 전에 홍성경찰서 들렀거든요. 그랬더니 정보과장이 ”학생들 걱정은 안 해유~. 괜찮아유~. 학생들이 뭐 하나유~. 그러더라고요.” 하고 못을 박아놨지요. 결국 학생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농활을 잘 했어요. 하여튼 별짓을 다하고 다녔어요.

1996년부터 2년간 교무부학장을 할 때는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통합, 이것이 큰 숙제였는데, 그냥 물리적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교과과정 통합하는 게 엄청 골치가 아팠어요. 학장을 할 때는 갑자기 로스쿨법이 날치기 통과가 되는 바람에 혼비백산 하지 않았나. (웃음) 그 다음에 평의원회 갔는데 거기서 말을 몇 마디 했더니 평의원회 부의장을 시키더라고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지, 마침 그 해에 총장선거가 걸려 있는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평의원회 부의장이 자동으로 맡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 봄에 총장선거관리를 했고, 나중에 교수협의회에 갔더니 법인화가 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웃음) 그래서 내가 뭔가 맡기만 하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웃음)

〈서울대에 대한 감회〉

오정후 : 그래도 아까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행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25년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까? 80년대에 시작해서 2010년대가 되었는데 학생의 변화나 학교 자체의 변화나, 그런 것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호문혁 : 내가 강의를 통해서 학생의 변화를 잘 못 느끼겠어요. 민사소송법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웃음)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말하자면 학생활동 같은 것이 많이 죽어버리는,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죽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대학생활에서 강의들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정작 남는 것은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점점 더 불행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특히 대학신문 주간을 하면서 대학신문 수습기자 모집을 하는데 정원미달이 된다든지, 예전 같았으면 상상을 하지도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물론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 이기는 하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같은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런 것을 점점 외면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 전체로 보면, 확실히 서울대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대라는 곳이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리드해나가는, 그래서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조차도 서울대에 물어본다든지, 서울대를 따라 간다든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위상이 추락했어요. 이것도

참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중등교육 정책은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자질이나 수준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일은 교육부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가 하느냐? 결국 서울대가 앞에서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등교육 정책인가,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를 모범으로 삼아서 서울대를 따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요새는 교육부가 서울대까지도 무시하고 전부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이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교협을 하면서 전국 국공립대학 교협회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네들은 ‘국립대학’이고 서울대학은 ‘서울특별대학’이라고 약간 비꼬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움을 주면, 예를 들면 교육부가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문제점을 서울대가 먼저 검토해서 가져다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점점 위상이 추락해가고 있어요. 고등교육정책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곧 나가는 사람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법학전문대학원〉

오정후 : 말씀하시던 중에 언급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고 전국법학전문대학원이 모두 모여서 만든 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하셨지요. 그리고 몇 년간 로스쿨 교수를 하시면서 우리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문혁 : 로스쿨의 미래가, 다들 같은 생각이겠지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로스쿨제도가 정착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법과대학 학사과정에서 LL.B.를 주는 식으로 했다가, 중간에 들쭉날쭉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제도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산물이 아니고 일부러 만든 제도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제도 자체로서 로스쿨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법시험이 날이 갈수록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인데, 그렇다고 로스쿨을 하면 잘 될 거냐? 그전에

내가 모 언론과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성공할지 잘 모르겠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로스쿨 담당하는 국장이라는 분이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보고 조찬이나 하자고 학교로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 와서는 “서울 법대가 로스쿨을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해도 될지 말지 한데.” 그래서 제가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로스쿨의 전제조건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죠. 미국의 로스쿨이 좋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로스쿨이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명문 로스쿨도 있지만, 3년 내내 변호사시험(bar exam) 준비만 시키는 로스쿨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럼 좋은 로스쿨은 왜 좋냐, 제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온 학생들이야, 그럼 미국 명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그 대부분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독서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한 친구들이고,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로스쿨로 간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이 훌륭하게 활약하게 된 것이지,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스쿨 제대로 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귀에 안 들어가지요. 당장 현실성도 없는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로스쿨법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그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상수 선배였어요. 만나서 로스쿨법안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양반이 로스쿨에 반대했지만 어차피 할 것이면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이 법사위에 오면 몇 가지 조문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안 거치고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웃음) 어쨌든 지금 로스쿨 잘 되는 학교도 있고 힘든 학교도 있고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 잘 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변호사 시험이예요.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로스쿨 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왕 로스쿨을 했으면 변호사시험도 미국 bar exam처럼 가야지, 변호사시험을 기존의 사법시험보다 수준을 더 높이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관하는 법무부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시험제도를 잘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스쿨제도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데도 말이죠. (웃음) 변호사시험은 영 안 되는 사람만 좀 걸러내는 제도여야 하고 학교를 믿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가야 로스쿨 안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설립취지에는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그게 제대로 되려면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신경을 안 쓰게 해줘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학교공부만 해도 괜찮도록. 미국이 그렇잖아요. 웬만한 로스쿨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bar exam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주관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절대로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걱정이예요. 단순히 합격률이 75%냐, 80%냐, 그런 것보다도 변호사시험 준비 공부 양을 미국 bar exam 처럼 확 줄여줘야 돼요. 졸업하고 나서 한두 달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정도로요. 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상당수의 로스쿨이 3학년때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변호사시험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이래 가지고는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스쿨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선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의 법률가 수요에 비하면 아직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기존의 판사, 검사, 변호사만 생각 하면 안 되고, 더 많은 곳에 변호사들이 스며들어가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전에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여러 곳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예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회에서는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좀 의연하게 가르치고, 너무 변시 합격률에 전전공공 하지 말고 정도(正道)를 걷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너무 휘둘러서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러면 로스쿨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삼가는 학교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법인화〉

오정후 :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회장 임기 동안 법인화 문제를 겪으시면서 대학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호문혁 : 사실은 하도 많이 물어봐서 서울대 교수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법인화법도 첫걸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꼭대기에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총장을 포함해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다 이사회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15명의 이사가 유일한 의결기구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 의결기구였던 평의원회도 심의기구로 전락해 버리고, 모든 것은 결국 다 이사회에서 정해버리고. 이런 형태는 이천 명이 넘는 교수가 있고 수만 명의 학생이 있는, 웬만한 도시규모의,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잡다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하고는 맞지 않는 형태지요. 재산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소규모 정부출연 연구소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대학은 그런 구조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사립대학보다 더 못한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사립대학은 재단이 있고 학교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연구는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인사라든지 중요한 결정, 재정 같은 것을 재단에서 결정해 주는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그것도 없이 다 이사회 밑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요. 지금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고 학교 사람이 말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서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칫 학교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서울대가 사립대보다 더 위험한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걸 안 된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그리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예측했던 일이지만, 자율성은 조금만 확보가 되고, 진짜 핵심적인 자율성은 재정자율성인데 그것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타서 써야 되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율성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정부기관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온 상태여서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처음에 내세우기는 법인화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202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보니까 세계 10위권은커녕 우리가 지리산, 백운산에 가지고 있던 수천만 평의 학술림, 이것도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 법인화되면 자율성 확보되고 교수들 필요하면 마음 놓고 뽑을 수 있고 등등 온갖 감언이설이 많았지만 정작 돼 보니까 좋은 점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들이 많아졌어요. 이러려면 뭘 하려고 법인화를 했느냐, 처음에 법안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년 예산타서 쓰면 절대로 자율성확보가 안 되니까 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관철시킬 능력이 없었는지 그냥 매년 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해야 하는 형편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도 뺏기고,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임기 말에 내가 서울대법 전면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총장하고 평의위원회에 던져주고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웃음)

〈민사소송법학회, 국제민소법대회 준비〉

오정후 : 그럼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민사소송법학회를 만들 때부터 관여하셨는데 학회 만들었던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호문혁 : 사실 민사소송법학회를 만들 때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창립준비회의를 할 때 고려대에 가서 참석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을 송상현 선생님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송 선생님은 학회에 전혀 안 나오셨는데, 나는 학회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좀 부실하게 활동했죠. 그런데 역시 학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학회에 가 보면, 이런 데 나오는 것은 내 시간낭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곽윤직 선생님께서 민사판례연구회를 만드신 게 학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대 출신의 판사와 교수들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를 만드셨어요. 요새는 꼭 서울대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모임이 우리 민사법 학계에 대단한 공헌을 한 거지요. 민사소송법학회의 경우에는 규모도 좀 작고, 내가 거기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간낭비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민소연 멤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학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학회가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석사만 마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발표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학회도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민소연의 존재 의미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끝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에 많이 진출해서, 우리 중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교수도 많이 되고 해야지요.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우리 법학계가 좀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서울대가

교수요원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대개 실무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사소송법이라도 그런 게 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오정후 : 민사소송법학회에서 회장도 하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제민소법대회’라고 해야 할지, ‘세계민소법학자대회’라고 해야 할지,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호문혁 : IAP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학회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council 멤버가 되었어요. 이게 매년 나라를 돌아가면서 학회를 여는데,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매년 하는 보통 학회하고 그야말로 world conference로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내년에 매년 하는 학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했다가보다도, 그전부터 세계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리 하겠다고 신청했던 나라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모스크바에서 했는데, 몇 해 전에 모스크바는 위험하다 해서 회장이 한국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문기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니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모스크바가 다시 살아났고, 그러다 결국 내년 학회를 유치하게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돈이야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장소를 연세대로 확정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대에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2014년에는 내가 서울대 교수가 아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더군다나 내년은 학회장이 연대 교수라 연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지요. 학교에서 하면 장소는 돈이 안 들고, 학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호텔비는 자기가 내는 거고, 참가비도 내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큰돈은 들지 않아요. 문제는 조직적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홈페이지 개설하고 회비 받는 계좌개설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큰일이고, 나는 지금 현 회장하고 차기 회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는데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해요. 주제발표자(general reporter)가 주제별로 각 국가별 보고문(national report)을 받고 그것을 주제발표자가 총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형식인데, 주제발표자도 정해야 되고, 각 국가별 보고자(national reporter)도 정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신경을 써서 해야 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어쨌든 IAPL 회장단에서 주제발표자 명단을 쫓는데, 그중 한 사람

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사회자로 한 사람을 내세워야 하고, 아시아에서 하니까 중국 사람을 하나 사회자로 정할 생각이요, 그리고 있는 중이죠. 지난번에 한중학회를 3년 하고 1년 쉬기로 했는데, 작년에 중국 가서 IAPL 선전도 하고 했지요. 하여튼 큰 학회를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게 무척 많습니다.

〈민소연〉

오정후 : 네, 이제 민소연 얘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92년에 준비모임을 시작을 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민소연 창립멤버가 두 분 계십니다. 선생님하고 김상일 교수님이신데요, 민소연 만들 때의 얘기를 두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문혁 : 사실 민소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끼리 민사소송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항상 학계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선생님께서 민사판례연구회를 만드신 그런 아이디어로 내실 있는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고 싶다, 그래서 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때 창립멤버가 김상일 교수하고 또 요새는 얼굴을 못 보지만, 조병소, 조수정, 강희주, 이은신 등 80년대 초반 학번들이었지요. 역시 다들 바쁘기도 하지만, 내가 꼭 선생님 같은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모이지 않고,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김상일 : 그 당시는 멤버들이 대학원생들이다 보니까, 대학원 수업하고 잘 구별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좀 뜸해지기도 하고 또 일 년 지나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문혁 : 야심차게 몇 가지 작업을 시작을 했지만, 독일민사소송법전 번역이라든지, 결국은 흐지부지되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로 아렌스 선생님 논문을 번역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작은 해 놓고 잘 안됐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오정후 : 지금까지 교육활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연구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히 로스쿨 되고 나서 학문후속세대양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되고 나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위축되지 않았는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호문혁 :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했다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만이라도 원칙을 좀 끝까지 지켜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로스쿨을 한다 그러면 ‘기초학문은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서 로스쿨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로스쿨이라는 데가 실무를 가르치는 곳은 분명히 아니고, 어찌면 우리나라보다 이론을 더 철저히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는 전국 로스쿨에 교수요원을 공급하는 중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라도 이론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특히 로마법이라든지, 법철학, 한국법제사 등등 이런 기초과목들을 더 충실하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실무과목이라고 하는 민사소송법이 그럴 수록 더 이론적으로 강하게 무장해야지요. 말하자면 로스쿨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서울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 로스쿨이 되니까 법학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로스쿨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학문적인 역량을 훨씬 많이 키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률개정작업 참여〉

이완근 : 이전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비롯해서 법률개정작업에 여러 번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호문혁 : 90년도에 민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개정안이 나왔을 때 공청회에 와서 의견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냐고 물어

봤더니 1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동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 하고 개정안을 펼쳐보니까, 맨 앞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조문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15분 얘기하면 되겠구나’해서, 그것만 준비 해서 갔지요. 그래서 공청회장 가서 비교적 빠른 순서에서 15분 동안 시간 맞춰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등등, 내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입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객석에 앉 아서 다음 발표를 듣는데, 그 뒤에 나온 발표자들은 15분은 무슨, 전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걸 로 끝났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개정위원 중에 선배인 최광률 변호사가 계셨는데, “아까 호 교수가 지적한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정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웃음) 그대로 법이 되었지요. 그래서 ‘또 한 번 속았다! 공청회라는 것이 역시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02년 개정 때는 비교적 깊이 관여를 했었어요. 대법원 개정위원회에 들어갔지요. 기본적으로 개정방향은 변론준비절차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방향에는 나도 찬성했지만 적시제출주의라든지, 온갖 실권제제에는 반대했 는데, 보니까 대개 법원에서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어쨌든 “실권강화 쪽으로 하면 소송이 제대로 안 된다, 판사들도 재판이 오관이 될 가능 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예외사유 의 표현을 고치자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못 하는 게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기껏해야 표현 몇 개만 고치는 식으로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몇몇 개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당시 내가 방학 때마다 독일에 가느라고 방학 중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을 분리했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몇몇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지나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집행법을 왜 분리했느냐고 했더니, 집행절차와 판결 절차가 달라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서 분리할 거면 민법도 채권법, 물권법 다 쪼개지 왜 그랬느냐, 독일은 입법 당시 소송법을 먼저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2002년에 개정하고 2008년에 또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준비절차를 안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오히려 예전

으로 되돌리는 내용인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회한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법에 익숙해졌으니 그만 해도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뭘로 아나!’ 상당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완근 :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텐데요, 그럴 때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호문혁 :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원고나 피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절차이니 역시 주목적은 올바른 판결을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실권제재를 많이 가해서 소송을 빨리 빨리 진행하는 쪽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독일 판례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지나친 소송신속화는 법적심문청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사건을 좀 정성을 들여서 심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절차인데 무르익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가령 민사소송법을 100시간 공부하면 답을 얻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들여 소화를 하면서 가야 하는 것처럼 절차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소송신속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의 기본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부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를 키워서 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쫓기지 않고 심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대법원의 규모도 늘리고 상고도 제한해서 명실공히 법령해석의 통일에 기여하는 법원으로 만드는 것이 민사소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죠. 그리고 이른바 실무라고 하는 것이 실정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법학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사태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 문제도 법원의 부담이 줄어야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변호사가 무성의하게 남의 사건을 처리하는 습관도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법을 안 지키고 흔히 말하는 ‘원님재판’을 하는 것, 이게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전체적인 틀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회고 및 장래계획〉

이완근 : 이제 마치면서 27년 정도 학교에 계시면서 ‘이거 하나는 정말 보람 있었다’는 것하고, ‘이런 일은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을 한 가지씩 말씀해주시죠.

호문혁 :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웃음) 내가 좀 더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면 박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일동 웃음) 너무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행동한 것 같아요.

이완근 : 처음에 ‘새장에서 풀려난 새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정년퇴임 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호문혁 :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하던 것을 계속 해야죠. 학교는 떠났지만 내 강의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가서 강의를 하고, 내가 그전부터 민사소송법 ‘체계서’를 하나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과서’ 말고. 제주도 갈 때부터 버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은 논문도 계속 쓸 겁니다. 첫 번째로 쓰려는 논문은 ‘소송담당’이 도대체 뭔지를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이완근 :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학교에 남아계신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호문혁 : 제자들에게 한 마디만 하죠. 공부 좀 하세요. (일동 웃음)

이완근 : 대답을 마치기 전에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임상혁 :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독일에서 오시면서 어떤 것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결국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문혁 : 사실 내 학위논문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권리

보호요건”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독일 사람들도 연구가 안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지요. 그 비슷한 여러 주제 중에 ‘장래이행의 소’도 있고 ‘부작위 소’도 있는데, 비전형적인 소송에서의 소송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위논문 썼던 방향으로 계속 공부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의 칩부터 걸리기 시작해서 (웃음) 그때그때 닥치는 주제에 대해서 한 마디씩 쓰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내가 본래 생각했던 주제들은 손도 못 댄 상황이죠.

임상혁 : 퇴임 후에 ‘소송담당’ 쪽으로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많이 쓰신 주제가 ‘채권자대위권’이잖아요. 사실은 교수님께서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수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일동 웃음) 학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독일법에는 없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법정 소송담당설’을 받아들이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실체법적 권리에 기반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체법 하는 분들은 심정적으로 실체법적 권리라는 쪽에 동조하면서도 소송법적으로는 이론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이론구성을 해주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류에 대해서 절차법을 잘 알아야 실체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고들 하는데, 채권자대위권에 관련한 주제에서 실체법도 잘 알아야 절차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해 주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담당제도의 근본부터 천착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학설과 같은 독특한 학설을 전개하신 원천이 무엇이고,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이 가능했는지 등에 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문혁 : 민사소송법이 독립된 법률이지만, 결국은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니고 실체법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 또는 방어를 하기 위한 절차, 한 마디로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만 볼 게 아니라 실체법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걸 실체법적 문제니까 소송법을 안 봐도 된단든지, 소송법적 문제니까 실체법은 안 봐도 된단든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민사소송법의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이 실체법과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채권자대위소송도 민법전의 규정하고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실체법적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을 실체법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소송담당’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예요. 민법 제404조에서 정한 요건, 이게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고, 채권자가 가지는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단순한 소권이 아니고 실체법적 권리다, 그리고 거기 정한 요건이 법률요건이다, 그게 불비되었는데 왜 소각하를 하느냐, 마치 대위권이 소권인 것처럼. 나는 단순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대위소송에서 나오는 중복소제기 문제도 실체법상 요건에 비추어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을 할 때는 대위권의 실체법적 요건불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법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체법을 완전히 빼고 소송법만 하는 것은 반만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예요.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가 얘기했듯이, 실체법이 주(主)고 소송법이 종(從)이고, 실체법이 목적이고 소송법이 수단이고, 실체법이 앞에 나가고 소송법이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위소송에 관한 것 외에 소송담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같은 경우 본래 실체법적 권리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된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직무상 당사자로 검사나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잖아요. 그런데 독일법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당사자의 대표적 예로 나와요. 왜 이렇게 큰 괴리가 생겼나, 아마도 일본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독일에서도 직무상 당사자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파산관재인이 대리인인지 뭔지, 한참 논쟁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뭔가 나오면 채권자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그 기준에 다시 비추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임상혁 : 사실 파산관재인하고 파산자는 아무런 실체법상 연결고리가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실체법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것부터도 서로 안 맞는다고 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법적 요건이 불비되면 본안 판단을 해서 기각하는 것이 맞겠지요.

호문혁 : 그 과정에서 우리 대법원에 대한 약간의 불신도 생겼는데, 강의시간에 얘기를 해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 80년대에 대법원에서는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실체법적 법률요건인데, 이게 불비되었다고 소각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민사판례연구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대법관님을 만났어요. 나를 딱 보더니 “아, 호 교수! 당신 말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결한 분이었거든요. (웃음) 주심은 아니고 그 부에 들어 있었는데, 어쨌든 소부에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니까 전원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처음에 재판연구관이 각하의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견 좀 이상하다, 더 조사해 봐라 하고 돌려보냈더니 다시 보고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선 판례가 없다, 그 다음에 문헌으로는 이시윤 선생님 교과서 각주 한 줄에 “각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이럴 때 “각하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대법관님 자신도 “그럼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 논문을 보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었죠. 어쨌든 민법이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 남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 대위소송은 자기소송이다, 이런 논리를 펴나간 것인데, 좀 더 소송담당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무상 당사자에 대해서도 좀 바로잡고, 그걸 바탕으로 대위소송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예요.

이완근 :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배석자: 전병서(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장원일(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정광현(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조용훈(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형상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선임연구원, 변호사), 정승연(판사), 정찬우(판사), 조의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손지홍(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 나원식(판사), 오대석(판사), 이현진(법무관), 김재희(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3학년 재학)